

친구는 항상 사랑

하고 형제는 역경을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잠언 17:17 – Ted Hildebrandt와 Chatgpt의 속담 이야기

산불이 계곡을 따라 맹렬하게 타올랐을 때, 그것은 아무런 경고도, 자비도 보이지 않았다. 연기가 해를 삼켰고, 불길은 마치 감히 서 있는 모든 것을 노리는 짐승처럼 펄쩍 뛰었다.

리엄은 가족의 소박한 오두막 밖에 서서 산등성이 너머로 점점 가까워지는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남동생 벤은 아침 일찍 낚시를 나갔다가 강 건너편에 갇혔다. 전화선은 끊어졌고, 도로는 막혔다. 연기 속에서 대피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리엄은 벤 없이는 떠날 수 없었다.

"지금 가야 해!" 초등학교 때부터 리엄의 가장 친한 친구인 케빈이 소리쳤다. 그의 픽업트럭에는 이미 필요한 물건들이 가득했다. "시간이 없어!"

"내 동생은 아직 거기 있어요." 리엄이 말했다. 그의 눈은 멀리 있는 나무줄기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케빈은 쿵광거리는 심장을 주체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럼 저도 여기 남겠습니다."

"뭐? 아니, 가야 해."

케빈이 리엄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친구는 항상 사랑하고 형제는 역경을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잠언 17장 17절. 내가 너 혼자 이 일을 겪게 둘 거라고 생각하니?"

그들은 함께 트럭에서 방독면 두 개를 챙겨 들고 강변 오솔길을 향해 달려갔다. 덩불을 헤치고 연기에 질식했다. 숲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요했다. 새들은 자취를 감췄다. 나무들은 바람에 으르렁거렸고, 어떤 나무들은 이미 가장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강둑에서 리엄은 반대편 강둑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흔드는 작은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인물은 비에 젖고 떨고 있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케빈은 하류의 연기 나는 폐허를 가리키며 "다리가 사라졌어요."라고 말했다.

리엄은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 부츠를 벗어던지고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상류에서 소방 활동으로 물이 불어난 듯 거세게 솟아올랐다. 그는 몸을 똑바로 세우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겁에 질린 벤에게 닿았다. 케빈은 반대편에서 소리치며 지시를 내렸다. 그는 배낭에서 찾은 밧줄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리엄은 떨리는 손과 빠근한 폐를 안고 벤을 어깨에 업고 다시 한번 차가운 강물을 건넜다. 강둑에 도착했을 때쯤, 불길이 거의 다 타들어 가고 있었다.

그들은 벤을 반쯤 끌고 트럭에 도착할 때까지 달렸다. 엔진은 켜진 채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들은 유일하게 통행 가능한 길을 따라 속도를 높였다. 백미러에 보이는 불길은 마치 거대한 벽 같았다.

나중에, 붐비는 대피소에서 리엄은 형 옆에 앉아 벤의 입술에 물컵을 가져다 대고 있었다. 케빈은 근처에 서 있었는데, 얼굴에는 재가 묻어 있었고 팔짱을 끼고 있었다.

"너는 떠났어야 했어." 리엄이 중얼거렸다.

케빈은 어깨를 으쓱했다. "규칙을 어겼을 거야."

"무슨 규칙이요?"

케빈이 미소 지었다. "친구는 힘든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형제는... 뭐, 형제는 이런 일을 위해 태어난 거지."

리엄은 지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속담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연기로 자욱한 하늘을 가르며 새벽이 밝아오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고, 형제는 역경을 위해 태어난다." 그 말은 더 이상 종이에 잉크로 쓴 오래된 속담이 아니라, 그들의 기억 속 잿더미 속에 새겨진 진실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